

연재기획-코로나 시대의 학생자치

소멸 혹은 진화, 선택의 기로에 선 학생자치

김수혁 기자 sherk@khu.ac.kr

연재순서

- ① 학생자치가 걸어온 어제
- ② 학생자치가 마주한 오늘
- ③ 학생자치가 바라볼 내일

#. 코로나19 등장 이후, 지난 한 학기 동안 대학 사회는 전례를 찾기 힘든 재난 상황에서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육, 연구, 행정을 막론한 대학의 전 영역이 도전에 직면했으며 이는 학생자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학생자치가 마주한 도전은 보다 특별한 주의를 요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주한 위기의 정도와 범위에 견주었을 때, 학생자치 영역이 대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너무나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면 쇄신을 요구하는 이 위기는 학생자치의 와해를 가속하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지만, 역으로 학생자치가 새로운 국면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동아리'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거나 긴 물건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 말할 때 그중 어느 한 부분', 다른 하나는 '같은 뜻을 가지고 모여서 한패를 이룬 무리'입니다. 둘 중 오늘날 한국어 언중에게 훨씬 친숙한 의미는 단연 두 번째입니다. 특히 학교나 기업과 같은 조직의 구성원들이 취미나 목표를 공유하기 위해 함께 활동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동아리라는 말의 이런 용례는 한국어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비교적 새로운 것에 속합니다. 1968년 경향신문에서 연재되던 최인욱의 소설 『태조왕건』의 어느 회차에는 "이 동북 방면에 출몰하는 여진족은 대개가 흑수부족인데 한 말로 흑수부족이라고해도 그 집단이 삼십 동아리나 되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1975년 동아일보의 한 칼럼에는 아이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을 사 들고 걸어가는 길 위의 풍경을 묘사하며 "바람에 흩날리는 저들 버들 꽃은 카네이션을 사 들고 동아리들끼리 재잘거리며 집길을 재촉해가는 그 착한 아들딸의 눈앞을 훤히 넘나들고 있었다"고 쓰고 있습니다.

동아리라는 말이 우리에게 친숙한 의미로 신문지면에 대거 등장하



코로나19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기 전 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교류하고 있다.

기 시작하는 시기는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 사이입니다. 동아일보는 1989년 8월 21일 발행된 「대학가 新造(신조) 우리말 유행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학생들 사이에서 외래어나 한자어를 우리말로 대체하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기존에 같은 의미로 사용하던 서클을 대신한 동아리를 포함해서 박음쇠(스테이플러), 댓거리(세미나), 날밤새기(철야농성)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학가가 되살린 '동아리'

국어학자 조항범은 자신의 책 『그런, 우리말은 없다』에서 "대학가에서 펼친 우리말 살려 쓰기 운동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부활한 단어를 하나 들라고 하면 주저 없이 '동아리'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대학가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일컫는 '새내기 새로 배움터(새터)'나 MT를 대신한 '모꼬지' 등 학내 자치활동을 가리키는 우리말 용어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난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학생자치의 문화적 유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동아리라는 말로 대표되는 대학가의 친목, 사교, 동호 모임은 대학생 자치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새터를 '대학 생활의 꽃'이라고 부르듯 많은 기대를 품고 처음 캠퍼스에 들어서면 신입생들에게 동아리를 비

롯한 학내 자치활동은 동경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올해 초부터 계속되며 우리 삶의 익숙한 구석구석을 뒤바꾸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학생 자치활동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가 1학기에 이어 2학기도 비대면 체제로 돌아가면서 올해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기대했던 동아리도 새터도 여전히 '남의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비대면이 불러온 자치활동의 위기

서울캠퍼스(서울캠) 총동아리연합회(총동연)는 지난 8월 27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한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중앙동아리 활동 자제 권고를 발표했습니다. 학생회관 폐쇄도 무기한 연장하게 됐습니다.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잦아들면서, 2학기부터 온라인을 통한 홍보를 중심으로 신입회원을 모집하기로 한 개별 중앙동아리들의 계획도 현 상황이 장기화된다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 캠퍼스 총학은 '온라인 축제' 개최를 위한 방안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0일에는 우리학교 서울캠 총학생회(총학)와 성공회대 총학 공동주최로 '코로나 이후의 대학, 그리고 학생자치'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울캠 총학 최인성(생물학 2016)

회장은 발제를 통해 "구성원이 매년 교체되는 대학 특성상 대면접촉의 중단은 기층 공동체 재생산의 심각한 위기를 낳았다"면서 "당장 올해 말 학생회 선거가 대거 무산될 것으로 예상되며 1~2년 내 학생회 임들이 소멸의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학생자치가 마주한 문제 가운데 '관계 형성의 위기'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만나지도, 친목을 다지고 유대감을 형성하는 공동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 상황에서 학생공동체라는 인식의 형성 자체가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각계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단기간 내에 종식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학생자치의 존속을 위한 '항체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낮은 일상의 귀환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 회장의 지적대로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가 보다 근본적이고 불가역적인 변화 위에 올라타 있다고 분석합니다. 미래학을 연구하는 윤기영(한국외대 경영대학) 겸임교수도 그 중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공동저자로 『뉴노멀』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은 "우리가 알던 세상은 끝났다"입니다. 책에 따르면 오늘날 국제사회의 네 가지 '메가트렌드'인 이상기후, 농지확대, 도시화, 세계화가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지구적 대유행 발생 주기를

더욱 단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상기후와 농지확대가 야생동물의 서식지 교란을 일으켜 동물 간 접촉, 동물과 사람 간 접촉을 늘리고 새로운 인수공통감염병의 등장이 빈번해집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와 여러 나라를 연결하는 인적, 물적 교류망이 전염병의 사람 간 전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의 확산을 부추깁니다. 당장 코로나19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월 13일 코로나19가 마치 독감과 같이 일시적인 유행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특정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발병하는 '엔데믹'이 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켜야 할 것과 놓아야 할 것

윤기영 교수는 "코로나19로 나타난 전염병 위험은 전통적인 대학 모델의 해체를 더욱 가속할 것"이라며 "완전한 변화까지는 적어도 한 세대 정도의 시간이 걸리겠지만 비대면 확대와 교육과정의 개별화로 대학이라는 환경의 물리적 외양이 바뀌면 학생자치 역시 근본적인 변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인원의 집합과 긴밀한 대면 접촉을 전제로 삼아온 자치활동들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윤 교수는 "지적 성숙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습득만이 아니라 이것을 연결지어 창의적으로 재생산하는 통찰과 지혜도 필요로 한다"면서 "이런 능력은 다른 사람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서 훈련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결국은 지금까지의 자치활동이 제공했던 교류, 협력 경험을 온라인, 비대면이라는 환경에 이식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학생자치운동은 기성 사회의 문화에 결핍된 요소를 지적하고 낡은 관습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대학가의 우리말 살려 쓰기 운동도 민족문화의 정체성 회복이라는 목표가 있었지만, 더이상 유효하지 않은 과거 학생자치활동의 표어까지 그대로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혹여 우리가 알던 동아리도, 새터도, 축제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받아들이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자치의 존속을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질문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인지도 모릅니다.